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8월 2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문 예 진 -

저는 문명의 이기라고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밖에 없는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동네 들판에서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집에 들어와 방송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조정 시간에 이어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무척 기뻐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경건하게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나면 드디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정성껏 애국가를 따라 부르다보니 놀 때도 흥얼거리며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유년 시절에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지만 저는 문득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열 살 때에 안양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슈퍼를 가다가 교회에서 나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전도로 그 슈퍼 위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동안 열심히 교회에 다녔으나 고등학생이 되자 결국 교회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10년 가까이 정신없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교제하면서 가족이 섬기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동안 주일마다 서울에서 산본으로 내려와 예배에 참석하고, 2007년에 침례를 받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은 무척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삶은 저의 신앙생활에 본보기가 되고 거룩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20년 넘게 인천성전에서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시며 은혜와진리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일찍이 집안의 제사를 없애고 독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시며, 일가친척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시고 또 많은 불신 이웃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그 어느 때든, 무시로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감화되어 저도 두 분을 따라서 오랜 시간 숙제였던 성경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믿음은 성경을 통독하기 전과 후로 나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다 읽은 후 저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고 신앙생활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도록 섭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님 또한 저의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먼저 ‘받은 줄로 믿고’ 감사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하십니다. ‘확정된 믿음’의 본을 보이시므로, 저도 그런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조카는 교회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며 교사의 직분을 즐겁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지난 해부터 남성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미리 청소하며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성경공부를 하는데 남편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의 뉘까지 어린 자녀 둘을 잘 챙겨주는 남편이 고맙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인데,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중등부에서 1부 예배 성가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딸은 친구가 많은데, 전도에 열심히어서 남편이 자주 딸이 전도한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고 또 집에 데려다 주며 잘 돌보아 줍니다. 이처럼 저희 가족이 즐겁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희 가족에게 구역예배의 복된 숙제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구역예배를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바쁘게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에 구역장대학, 교사대학, 성경대학, ‘대한민국 바로알기’ 과정을 연이어 수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여성 구역장과 아동구역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구역장 직분을 맡고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 저의 가족 8명으로 구역예배를 드리기가 시작하였습니다.

시부모님과 형님 가족을 모시고 시작한 구역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는데, 교구 전도사님이 잘 지도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돌아가며 대표기도를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0 요일, 0시에 구역예배

드립니다. 이번 주 대표기도는 0 0 0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미리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아버님부터 저의 작은 딸까지 돌아가며 대표기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도님들을 구역원으로 하여 드리는 구역예배도 인도하게 되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남편의 인도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된 일입니다. 남편이 저희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이 되길, 믿음의 반석위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과 주중의 모든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령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득, 시어머님과 함께 있던 날 교역자님의 심방을 받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16)라고 한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되어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무척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교역자님의 심방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이사야 46:4)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도 저는 신앙생활면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선교연합회, 벨엘성가대, 북한선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평신도성경대학원에서 배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욱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을 뵈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3권 (2단원 : 인간의 타락과 구원)

(제12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

- 본문 : 갈라디아서 3:1-14

• 요절 :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갈 3:11)

• 찬송 : 343장(새찬송가 544장), 416장(새찬송가 294장)

초대 교회 당시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율법주의 유대인 신자들이 그곳에 이르러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적잖은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율법주의자들의 꾀에 빠진 신자들을 경책(警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 인간의 공로는 구원을 받는 데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주로 인간이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여 충분한 공력을 쌓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도들은 고통스러운 현세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행하며,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좌선이나 고행과 같은 엄격한 종교적 수행을 통하여 도를 깨치고자 합니다. 또한 도교(道敎)와 같은 종교는 독특한 호흡법과 선약(仙藥)을 복용함으로써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여러 주장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공통된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하신 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결코 하나님께 열납될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자력(自力) 구원의 사상이 기독교 내부에 꾸준히 침투해 오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난 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던 로마 가톨릭의 보속(補贖) 교리에도 나타나 있으며, 오늘날 사이비한 종파들의 주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외에 인간의 공로를 추가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가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줍니다. 만약에 부모가 선물을 주면서 무슨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선물이라 아니라 자녀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까닭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하신 성경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게 하셨으며,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으므로 인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3.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롬 4:11). 아브라함이 이 같은 복을 받게 된 원인은 그가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우리처럼 실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였으며,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창 15:6)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백세요 아내 사래의 나이 9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래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없이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갈 3:7,9)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도리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을 증거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6)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을 미혹했던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는다는 도리(道理)를 굳게 잡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